

제 202 호

군인 주일

1976. 10. 3.

#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법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1977년도 전주교구 사목교서□

## 『민음을 행동으로 증거 합시다』

(행동하는 믿음의 해)

친애하는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를 반성하건대, 우리는 「봉사하는 하느님 백성이 되자」는 목표 아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보다 뚜렷이 일치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점 크게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대했던 그 성과가 만족할만한 것은 못되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각 본당, 각 단체들이 나름대로 계획한 바를 열심히 추진해 보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치밀한 계획성의 결여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에만 치우친 사례가 많았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당 자립(本堂自立), 사제양성 후원사업(司祭養成後援事業), 출판물 보급운동(出版物普及運動) 등 아직도 목표달성에는 요원하며, 긴급한 과제들이 누적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지난해 미비된 점들에 대해 계속해서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저는 금년을 「행동(行動)하는 믿음의 해」로 정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을 구체적인 생활속에서 행동으로 힘있게 증거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믿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생활을 인간생활의 한 부분으로 오해하여, 몇몇의 신앙조목(信仰條目)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의무행으로 충분하게 여기는 신자들이 적지않음은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참여한 이상, 우리의 전생활은 바로 믿음의 생활이며 당연히 그리스도의 생활을 재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된 생명은 이미 죽은 생명이며,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끊임없는 활동이 수반되듯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야고보 2, 14-26)입니다. 계속적인 선행을 통해서만 믿음도 성장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모든이로부터 지탄받는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사회를 인도하고 감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약화되었다면 그 근본이유 역시 믿는 이들이 말로는 사랑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실제 이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허공에 뜬 말이나 위선이 되지 않기 위해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들이 가정, 직장과 사회, 본당안에서 해야될 몇가지 실천적인 과제를 제시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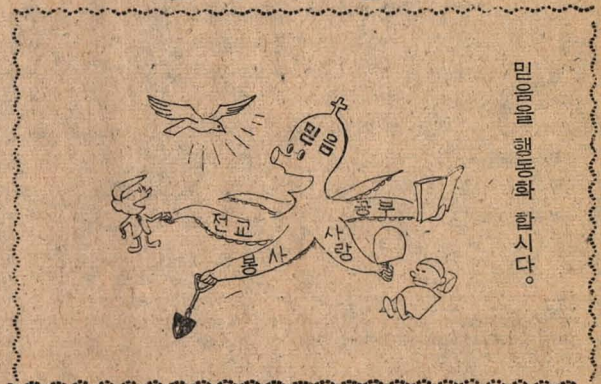
### 1. 가정안에서의 신자생활

교회와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은 인간의 생명을 전달하고, 인격을 향상시키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제반 덕행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특히 신자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협력하며, 함께 하느님을 예배하고,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세상에 현존시켜드리며,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듯 신성한 가정이 오늘날 두가지면에서 크게 파괴되고 있음은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는, 산아조절(産兒調節)이란 미명아래 낙태(落胎)와 유아 살해(幼兒殺害)가 가정안에서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생명은 그 수태되는 순간부터 성심껏 보호해야 하며, 낙태와 유아살해는 가증할 죄악」(사목원장 51항)임을 교회는 거듭 천명해 왔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산아조절에 있어서 교회가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운동」의 방법만을 사용할 것이며 이의 보급을 위해 다같이 힘써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는, 가정안에서의 신앙교육(信仰教育)이 너무도 소홀히 되고 있는 점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의 진학문제나 학교성적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도,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너무도 등한시 하고  
(2면에 계속)

## 순정이 산책



## (2) 순 정 이

있음은 통탄할 일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의무는 곧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알고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신앙교육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모된 이는 자신들이 먼저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웃에 봉사하고, 함께 교회 전례에 참여함으로써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으로 가득찬 가정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직자, 수도자들은 신자들의 가정생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가능한한 자주 가정방문(家庭訪問)을 실시하여 말씀의 천례 집행 등으로 영적 도움을 주며, 화목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많은 조언을 해 줄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 2. 직장과 사회안에서의 신자생활

모든 신자들은 사회안에서 한 시민으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현세적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위에 영원한 도시를 가지지 못했고, 장차 올 도시를 찾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헤브13, 14) 이 때문에 자신의 현세적 임무를 소홀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또한 직업적 사회적 활동이 종교생활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생각도 잘못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공동선에 이바지해야 하며, 그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신뢰받는 모범적인 직장인,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회안에서 만나게 되는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의 생활의 증언이야말로 사람들을 신앙과 하느님께로 이끄는 기초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선포의 임무는 “이러한 생활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며, 말로써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신자들을 가르쳐 굳세게 하며, 더욱 열심히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평신도 교령 6항)

더우기 우리는 다만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이나 사회의 제도나 질서가 인간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일 때, 복음의 정신으로 쇠신시켜야만 되는 중대한 사명도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회안에 불의가 제도적으로 자행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신자들의 당연한 권리이며, 또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명을 수행하다가 지금도 옥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해 교구내 모든 신자들이 일치하여 계속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신자들의 복음전파와 성화의 사도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분야별, 또는 직장별로 신자들이 조직을 이루어 활동해 줄 것을 특히 권장하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조직적인 활동은 고립된 생활과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서로의 경험을 교환할 수 있고, 힘이 분산되지 않게 한꺼 모음으로써 보다 훌륭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 3. 교회(콘당)안에서의 신자생활

우리가 지향할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사

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 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 것을 공동소유로 내어 놓았다. …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이고 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나누고 기쁘고 순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보게 되었다.”(사도행전 2, 42-47)

이상적인 교회모습의 특징이며 동시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바는 바로 신자들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간 교회안에서 누누히 강조되고 있었던 공동체 의식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자들이 고립된 처지에서 살며, 소외된 상태에서 피로움을 겪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형제애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적 유대가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교회안의 몇몇 소수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라 신자 모두의 의무입니다. 비록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미소하게 여겨져더라도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임을 자각하고, 교회의 살림은 바로 내 살림같이 알뜰히 돌보며, 교회안의 각종 단체에 가입하여 교회의 사업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의 모든 분야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는 오늘날 각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교회일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힘을 모아 가난하고 고통받는 형제에게 사랑을 베풀고, 지역사회의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애덕의 증거를 보다 활발하게 전개시켜줄 것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친애하는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보다 진실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정신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이 활기에 넘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확고한 신앙의 확신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보다 깊이 복음의 정신을 탐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쇠신시키며 신앙교육에 대한 가일층의 열의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부족한 행실에 주님의 풍성한 강복을 얻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각종 전례에 적극적인 참여로 영적인 힘을 얻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입니다.”(루가 8, 21)

1976년 10월 1일

천주교 전주교구장 김 재 덕 주교

□ 신앙의 길잡이 □

## 경 향 잡 지

■구독료: 月 200원 (1년 선불은 2천원)

한국 천주교회가 67년동안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 발행해온 신앙의 길잡이인 경향잡지.

알고계시죠? 구독하고 계시죠? 아직도……?

집집마다 1권씩 빠짐없이 구독합시다.

■구독 신청: (우편번호) 100

서울 중앙 우체국 사서함 16호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경향잡지부

□ 감 론 □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 안됩니다.



공 아 영 신부

오늘 복음은 가정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혼인 파기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권유하십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내도 좋으나 물어 본 바리사이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모세는 당신들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라고 명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와 사람들은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그들 책임으로 돌리고 구약성서 창세기에 의거하여 결혼의 최대의 법을 회상시키고 그에 반대하는 것을 비난하십니다.

현재 가정생활을 생각해 봅시다. 천주대전에 약속된 계약을 더 이상 수납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다가 재혼하기 위해서 갈라지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리에 방황하며 고아원에 보내지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교육이 아주 위태롭게 되므로써 그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 성교회는 해소할 수 없는 결혼을 권하여 항상 하느님의 법과 인권을 변호하므로써 가정과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소박하고 순진한 어린이들에게 강복을 주신 주님을 우리는 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가지는 특성은 그들의 민족성과 사고방식 그리고 그들의 생명력으로 나눌 수 있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은 세계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통점 한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소박과 정직」입니다.

어린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이들을 쫓아내는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시면서 바로 이 점을 암시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시오. 하느님의 다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질 못할 것입니다.”(마르코 10: 14-15)

어린이들은 생각하는 것을 반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바로 어린이의 특징입니다. 경험이 많은 어른들은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속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갈라지지 않는 결혼 생활’과 ‘어린이와 같은 순진성’을 강조하십니다. 성실한 가정생활을 강화하는 한 어린이들은 부모님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일합시다. 아멘.

(노송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요심이** (166) 김명호

그분들이 출감하면 성무활동 못하나요? 그분들은 훌륭한 신부입니다.

그 이유는? 현대적 순교자이기 때문에...

5년이상형을 받았는데도? 형량이 많을수록 순교정신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주여! 고등법원에서는 사형연도쯤 내려주시길 간절히.....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님 찾 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⑤ 5 0 1 3  
김 원 준(야고버)

**天使의 집**

김 선 희 (테레사)

□ 전동 성당 옆 문부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팝니다\*

**고운 의상실**

최 춘 자 (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전주극장 동편입구  
2-6219

**한국 온수연탄 보일러**

※ 연탄 가스 때문에 고생하세요?  
이젠 열려 없어요.  
한국 온수 연탄보일러가 연탄가스에서 해방시켜 드리니까요.

연락처 : 전주시 중앙성당 상가  
전 화 : ⑤ 4 7 8 4

범 창 규 (베드루)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 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65-16 (전화4940)

**한 동 압** (모이세)

금암동 ⑤5614    군산 3032  
다가동 ⑤4342    부안 736  
전 동 ⑤2143    정읍 2157

★ 각 지방 지점 구함 (계약금 없음)

각종 생과자 식빵 및 케익

**미미제과소**

전화 ⑤ 6 5 8 9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6  
(상업은행 옆)

유 영 문 (기에파노)

**연탄**

불러 주시면 언제라도  
신속,정확,친절하게 배달함

이 영 희 (다두)

◎전주시 전동 성당 문부  
(전화) ⑤ 8 4 6 6

제 4 지 구 각 분 당 소 식

※ 공지 사항 ※

1. 본당 실무자 연수회 <6일 오전 11시~7일, 주교관 회의실>
2. 중·고등 학생 연합회 지구 대항 친선 체육대회 <10일(일) 오전 9시부터, 해상학교 교정>
3. 전국올드레아 <9일 오전 9시 30분 접수, 광주 살레시오 여고, 준비물-겉잡이, 목주, 회비(1,500)>  
꾸르실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전개된지 9년, 전국 14개 교구의 7,000여 꾸르실스마 형제 자매가 한자리에 모아 돈독한 우정을 찬란하게 꽃피울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대만을 믿는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뜨거운 우정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광주에서 제일 가까운 전주교구 꾸르실리스마 형제 자매들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혼인문제 상담일 <6일(수), 교구청 응접실>, 매월 5일은 교구비 분납의 날.

(중앙)

전화 ③3651 주 임 신 부 이 대 권  
③3874 사 보 좌 신 부 이 중 원  
사 도 회 장 이 상 동

1. 사도회 월례회: 10일 공식 미사후(구역장, 반장)
2. 복자 현양대회: 3일(금요일) ※ 주교님 집전
3. 방지거 삼회: 오늘 오후 2시 30분
4. 꾸리아 월례회: 다음주
5. 추가된 교무금 속히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미사 시간 변경: 주일과 평일 미사  
아침-6시→6시반, 오후 8시→7시반.
7. 책대금(도서)이 미불된 교형님은 납입해 주세요.

(노송동)

전화 ②7032 주 임 신 부 공 아 영  
사 도 회 장 박 종 용

1. 사도회 임원구성: 오늘저녁 미사후(8시).
2. 신용 협동조합 월례회: 다음주 공식 미사후.
3. 10월 4일은 성프란치스코 축일: 오후 2시미사와 일회식과 서약식 있음(미사후 기념행사-많이 참석해 주세요)
4. 누갈다 모지 제대 건립 헌금: 이요셉(재열) 1,000원
5. \*축 훈배 성사 \* 9일 오전 11시, 조 화성(방지거)군, 김 순향(마리아나)양.
6. 가절 방문(인후동): 6일(수) 오전 8시반부터.

(덕진)

전화 ③2182 주 임 신 부 박 종 근  
사 도 회 장 김 용 환

1. \* 10월은 로사리오 성월 \*
2. 77년 신년도 예산 확정 통과: 총예산액 5,371,600원
3. 파년도(76년) 교무금 미납자는 15일까지 완납바람.
4. 성당 신축 미 납입하신 분은 15일까지 신일 바람.  
※ 봉헌금 미납자 15일까지 본당 사무장님께서 개별방문, 준비하셨다가 꼭 납부해 주세요.
5. 성당 신축 성금(지난주 신일: 박영철, 길정희(각 2만원), 박우석(5천원) 누계 4,031,500원.
6. 신용 조합(임원회-4일 12시, 월례회-10일 공식 미사후).
7. 성서(기도서, 성가집, 목주, 미사포): 본당 사무실에서 구입바람.

(복자)

전화 ②5238 주 임 신 부 김 종 길  
사 도 회 장 조 성 호

1. 10월은 77년도의 새출발-아직 교무금이 미납하신 분은 속히 협조해 주세요!
2. 순교자 현양대회: 3일 11시(금요일), 본당 <새벽미사-저녁미사 있음니다.>
3. 첫 영성제반 교리: 4일~16일까지, 오후 4시~5시

(서학동)

전화 ②2276 주 임 신 부 오 현택  
사 도 회 장 박 장 준

1. 10월은 매괴성월-미사후 합동으로 목주의 기도드림
2. 신자 및 예비신자 면접(5일부터): 협조 바랍니다. 5일(화)-1반, 6일(수)-2반, 7일(목)-3반, 8일(금)-4반.
3. 수시로 견진신청 바람-31일(마지막 주일) 전진성사 있음.
4. 도장 공사 헌금: 박봉덕, 한울순(각 1만원), 이복순 박명주, 박석근(각 5천원), 김문숙, 송복래, 박창근(각 3천원), 원정애, 전영순, 황길용(각 2천원), 한순래, 홍완섭(각 1천원).
5. \*여기에 사랑의 다리를.....서학동 공소(광곡)가 유리창도, 마루도 없는 곳에서 공소 예절을 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의 협조 바랍니다. 연락처-서학동 본당 <T. 2-2276>

(전동)

전화 ③3222 주 임 신 부 김 환철  
보좌 신 부 김 변환  
사 도 회 장 유 석중

1. 10월은 로사리오의 달 가족끼리 <기도 바치기, 신자화>.
2. 유아영세: 오후 2시.
3. 성화회: 다음 주일로 연기.
4. 사도회장단 개편: 회장-유석중, 부회장-안득수, 이종두.
5. 77년도 본당 예산 규모: 15,500,000원.

※ 각 본당의 금주간 소식과 지난주일 봉헌금 ※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지구	본 당	소 식	봉 헌 금
제 1 지구	고 김 수 신 태 인 음 창 계 류 인 음	평일 미사에 참배 합니다.	5,600원	제 3 지구	주 현 동 창 인 등	부인회	79,130원
		8일 반회장 회의	29,090원			* 축 영 세 26 명 !	93,157원
제 2 지구	대 윤 월 중 합	중학교 입학 장학생 공모 요리 대회	8,030원	제 4 지구	중 노 송 덕 부 서 학 동 전	방지거 삼회	90,070원
		성지 순례(전주)	26,945원			사도회 임원 구성	34,570원
		공소 사도회장 선거	7,020원			4일 신용협동조합 임원회	16,080원
제 3 지구	고 금 여 산 산 산 배	다음주 사도회 정기총회	66,810원	제 5 : 6 지구	무 장 전 남 순 임	신자, 예비자 면접	22,706원
		다음주 사도회, 요셉회, 부녀회	31,730원			사도회 회장단 개편	110,050원
		다음주 사도회 상임위원회	20,015원			가정 방문	14,300원
		매일 저녁 르사리오 기도 실시	15,110원			사도회 월례회	4,605원
		다음주 상임위원회 월례회	7,680원			스화 유치원 작품 전시회	14,200원
		가정 방문	23,060원			다음주 사도회 임원회의	5,770원
		자모회 월례회	9,000원				
			16505원				